**‘더 플랜’**

112882 김대형

112896 김효준

**의견 1)**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크게 진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Technology', 기술이다. 나날이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더욱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인간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을 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며, 집 안에 모든 가전제품도 사람의 행동 하나로 통제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작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스포츠와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기계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계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기계는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수 있을까? 영화 ‘더 플랜’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단 하나의 기계, 또는 보잘것없는 200, 300Kb 짜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사실 나조차도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총선이나 대선에 늘 투표를 하러 갔으며, TV에서나 보던 투표분류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계가 하니까 늘 정확하고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기계에 오차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고 나 역시 대다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계의 정확성과 완성도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계의 편의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작업은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미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 하나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믿고 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과연 어떨까? 우리는 이제 기계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왔지만 2012년 대선에서 우리는 기계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는 기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기계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투표 분류기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곳에 사용되는 기계이니만큼 우리가 하는 의심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계란 없다. 우리는 이제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계도 결국 인간이 다루는 물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계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기계는 단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빠른 일 처리 속도를 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없고 차지해서도 안 된다.

**의견2)**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의해 선거로 대표자를 뽑아왔는데, 오래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선거에도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영화 ‘더 플랜’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을만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영화 ‘더 플랜’에서 제기 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라고 생각한다.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결함이 없는 완벽한 기계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보안카드를 통해 승인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유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해킹 및 조작이 불가능 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시스템이든 사람이 만들어 낸 이상 어딘가에는 취약점이 있고 누군가는 이러한 틈을 찾아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투표 기계에 대한 두 가지의 해킹 실험이 진행 되었다. 허스티의 해킹 실험에서는 디볼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조작을 시도 했는데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메모리 카드만의 조작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 기계를 조작 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도 해킹 실험이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연결도 없이 해킹은 힘들 것 이다 라는 믿음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 만에 2~300Kb 밖에 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조작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원하는 대로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완벽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리고 완벽해야만 하는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토록 취약한 컴퓨터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컴퓨터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맹신이라는 이 문제점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재 개표 시스템의 절차는 1차적으로 기계에 의한 분류 이후 사람들의 검토가 이루어 지고 결과를 종합해 발표가 된다. 첫 번째 과정에서 기계의 오류든 혹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조작이든 실제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단계에서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맹신으로 본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이제 더 빠른 기술 혁명의 시대를 겪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넓고 크게 기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컴퓨터는 항상 완벽할 것이라는 맹신은 스스로를 거짓된 세상 속에 가두어 놓는 실수이다. 기계에 대한 맹신은 결국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결국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진실된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며 살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맹신은 버려야만 한다. 항상 컴퓨터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든 사람이 만든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잘못된 결과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계를 다루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인간 없이는 기계도, 하물며 인공지능 역시 스스로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판단이 주가 되고 사람들의 의견이 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은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 컴퓨터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혹은 잘못된 판단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활용하며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은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